

# 내면세계 울리는 깨우침의 글들

베스트셀러에 오른 수도승들의 책을 읽고

정병조 | 동국대 인문학부 교수 · 한국불교연구원장

현각 · 법정 · 원성 등 세 수도승의 책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들은 참담한 수행의 편린을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인 '솔직함'으로 담아낸다. 이는 이제 우리들의 관심이 인간성, 진리, 그리고 문화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울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인간은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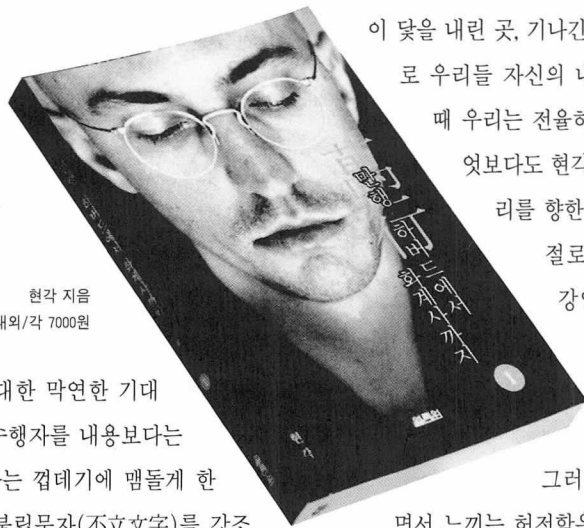
최근 불교 승려들의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현각의 《만행 ·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열림원), 법정의 《오두막 편지》(이레), 원성의 《풍경》(이레) 등이 바로 화제의 책들이다. 종교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도 이채롭고 침묵의 언어로 표현되는 불교의 세계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점도 특이한 현상이다.

많이 읽히는 책은 결국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전직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관료들의 회고록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호기심뿐 아니라 정치적 관심 때문이다. 돈 벌기에만 정신이 팔렸던 시절에는 증권투자나 부동산 관련서적들이 팔려 나가게 마련이다. 세 수도승의 책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들의 관심이 인간성, 진리, 그리고 문화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울고 있다는 뜻이다.

## 수행의 진솔한 목소리 담겨

세 수도승은 출가동기, 수행과정, 삶의 모습이 각기 다르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보편적인 향기가 있다. 다름 아닌 수행의 '진솔한 목소리'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참담한 수행의 편린을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인 '솔직함'으로 담아낸다는 점이다.

구도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솔직담백함이다. 관념은 언제나 위선을 잉태한다. 지적 호기



현각 지음  
열림사/A5신/238면 내외/각 7000원

심, 깨달음에 대한 막연한 기대 등은 언제나 수행자를 내용보다는 형식, 본질보다는 껍데기에 맴돌게 한다. 선승들이 불립문자(不立文字)를 강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또 하나의 오류는 수행자의 매너리즘이다. 지겹게 반복되는 일상, 형식적인 규범,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객관세계의 무미건조함 등은 수행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함정들이다.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 우리의 수도의지는 퇴색해버린다. 적당히 세속의 어리석음을 웃어주며 하루하루를 죽여갈 뿐이다.

현각의 《만행》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의 글 속에는 오늘날 지식인들의 관심, 지적인 방향, 그리고 불교적 대응방안 등이 농축돼 있다. 그는 세속적으로만 말한다면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신분의 소유자였다. 가문 · 학벌 · 재력 등에서 탄탄대로를 걷던 촉망받는 젊은이었다. 그런 그가 화계사까지 이르는 험난한 구도에 나선 일은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기에 충분한 감동으로 다가선다.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던 것,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던 옛 정서, 진리 등이 아주 새로운 의미로 부각된다.

아마 우리는 자신의 문화와 역사에서 이방인이었는지 모른다. 이 점이 우리를 누우치게 하며, 소중한 자기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지친 영혼이 닳을 내린 곳, 기나긴 방황의 종착지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내면이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현각의 뛰어난 장점은 진리를 향한 구도의 열정이다. 좌절로 쓰러지지 않는 그 강인함 속에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진리를 향한 염원이 서려 있다.

그러면서도 책장을 덮으면서 느끼는 허전함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이방인이 던진 화두, 한국과 한국불교를 왜 우리는 소홀하게 여겼을까 하는 자책 때문이리라.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다시 매겨보는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쉽고 아름다운 글이 주는 감동

법정은 남다른 수행과정과 아픔으로 암울했던 우리 시대를 표상해온 대표적 불교인이다. 그의 글이 일반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까닭은 '쉽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난해하고 복잡한 주제도 그의 입을 통해서 다가설 때는 언제나 부드럽고 포근해진다. 그러면서도 법정의 글 속에는 팽팽한 긴장이 있다. 아마도 순탄치만은 않았던 수행의 여정과 세속적 관심으로만 그에게 접근하려 했던 편견에 대한 묵시적 저항이라고 짐작된다.

사실 송광사 생활을 청산하기까지 그는 불교계 안에서 작은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있다. 고고한 성품은 귀족적인 모습으로 비치고 고독한 자세는 대중과의 결별쯤으로 매도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의연히 수행으로 일관한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국불교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읽는다.

시인이 아픈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한 적이 있다. 법정의 고뇌가 내면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모순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속적 편견과 오해가 그를 아프게 했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고 만다. 그러면서도 그의 글 속에는 따사로움이 있다. 비록 시니컬한 비판이 담겨 있을지라도 세상을 보는 그의 안목은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풍경》을 통해 글과 그림을 세상에 상재한 원성은 그 독특한 캐릭터로 우리를 미소짓게 한다. 사실 '천진함'이란 불교의 궁극적 목표기도 하다. 중국 선사 중에 자신의 제자를 천방지축으로 키운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 제자는 결국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제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놀고 하는 사미승이 됐다. 인젠가 큰 스님이 출타하고 난 뒤 보다 못한 다른 이들이 사미승을 가르쳤다. 어른에게는 공손해야 하고 합장은 어떻게 하며 절할 때는 어떠한지 알려주었다. 큰 스님이 돌아오자 사미승은 배운 대로 의젓하게 행동했다. 그때 큰 스님은 장탄식했다. "누가 이 천진함을 망쳐놓았구나!"

사실 인간의 천진스러움이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망가질 때, 인간성의 그윽한 모습도 사라지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원성은 바로 그 천진함에 대한 향수를 일깨운다. 그의 글은 현란하지 않지만 다소곳하다. 그의 그림은 빛나지 않지만 소박하다. 헤겔은 인간의 언어를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으로 나눈 적이 있다.

감성적 언어는 인간을 흥분시키고 이성적 언어는 인간을 냉정하게 만든다고 했다. 원성의 글과 그림은 감성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그저 담담한 미소를 머금게 할 뿐이다. 구태여 세속적인 분류를 한다면 인간적인 표현일 따름이다.

### 인간에 대한 내면적 탐구 일깨워

사바세계의 공해는 끝간 데를 알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의 불꽃은 인간성을 처절하게 파괴해간다. 특히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언제나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일에 익숙하다. 그러나 모든 불행의 씨앗은 자기자신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불교는 인간성의 무한한 자유를 지시한 가르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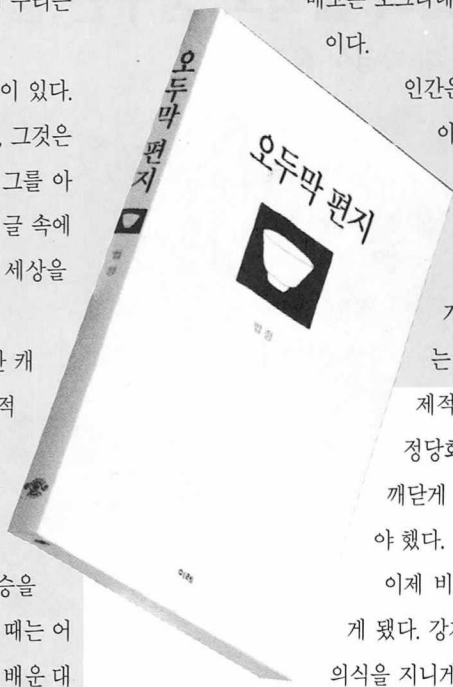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넉넉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불교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해왔다. '잘 먹고 잘 사는 일'만이 행복인 양 착각해왔다. 그러나 물질과 정신은 균형적 개념이어야 한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려는 인간정서는 언제나 옳은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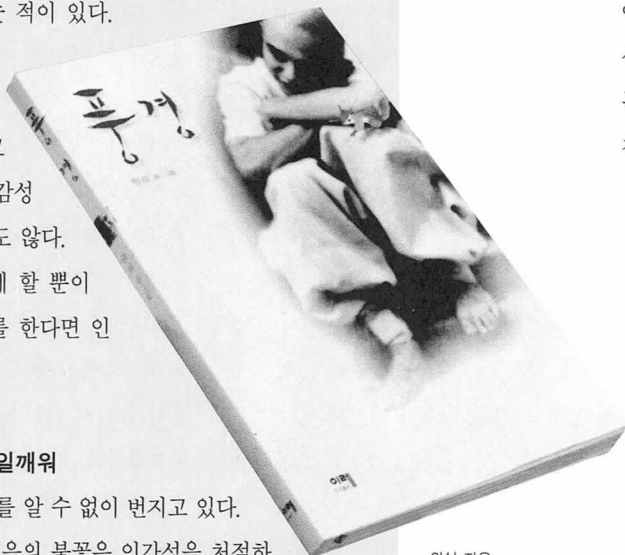
인간은 항상 문제를 안고 사는 동물이다.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면, '문제 없다는 문제'를 안고 살게 마련이다. 지난 이천 년 동안 우리는 '힘의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과학과 기술을 앞세운 서양의 동양강점, 끊임없는 전쟁, 보복과 살육, 그리고 오늘날의 경제적 대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적자생존을 정당화시켜 온 것이다. 인류가 공존과 조화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무려 이천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

이제 비로소 인간들은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게 됐다. 강자에 의한 지배가 결국 공멸이라는 위기 의식을 지니게 된 것이다. 문화란 따지고 보면 인간성으로의 회귀를 가리키는 말이다. 말하고 먹고 배설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제 서서히 '타인에 대한 배려'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너와 내가 공존할 수 있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자비로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사상적인 분기점에 서 있다. 정보화를 통한 물질적 만족의 추구와 함께 영원한 수수께끼인 인간에 대한 내면적 탐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 '길'에 대한 사색의 편린이 바로 위에서 살핀 세권의 아름다운 책이다. 독자들은 그 행간에 숨은 의미 이상의 의미를 느끼고 천착해야 할 것이다.●



법정 지음  
이레/A5/238면/7000원



원성 지음  
이레/A5신/206면/8000원